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27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담 당 자	• 기획팀장 • 담 당 자	이규석 ☎440-2131 정경숙 ☎440-21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행안부에 행정체제 개편·재외동포청 설치 등 협조 요청**  
**- 9.26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필요성 설명,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지원 요청 -**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특별교부세 300억 원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정체제 관련 사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전망이다.

\* ·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중구, 동구 → (가칭)제물포구, (가칭)영종구  
 · 인구규모에 따른 분구 : 서구 → 서구, (가칭)검단구

‘재외동포청 설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재

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없으나, 유정복 시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9월 22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천명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상민 장관에게 750만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121명이 인천에서 출발한 역사적 의미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면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한상 드림 아일랜드, 인천 내 15개의 국제기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재외국민의 지위 및 생활보장, 인권, 권익 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교부세 300억 원’은 산업단지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재외동포청 설립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사안들로 이상민 장관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